벤처창업연구 제16권 제6호 (통권78호)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6 No.6 pp.57-68

ISSN 1975-7557
e-ISSN 2671-9509

혁신형 창업기업의 입지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을 중심으로*

최종민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 7년 미만 창업기업 231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업의 경영 측면, 협력 및 네트워크 요인 획득 측면, 창업 환경 측면으로 만족도를 구분하여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입지 만족도와 우수 인력 획득 용이와 관련된 입지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수도권에 있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털 등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입지 만족도와 편리한 교통,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업 환경 분위기와 관련된 입지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매출액 증가할수록 이전 의도가 줄어드는 반면 업력이 증가할수록 기업 이전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혁신형 창업기업의 입지 만족도와 기업의 이전 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집적을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데 정책적 함의가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기업, 기업이전, 기업입지, 만족도

Ⅰ. 서론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업의 입지선정이다. 입지적 조건이 우수한 곳에 있음으로써 유무형의 자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성공적인 경영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석호 외, 2011; Lee, 2020; Weaver et al., 2011).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의 입지선정과 그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활동이다.

선행연구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입지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문준서·창원규, 2008; Sridhar & Wan, 2010; Zheng & Shi, 2018). 크게 두 가지 연구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연구 경향으로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업이 입지를 선택하고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한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 경향으로는 입지요인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무선, 2016) 또는 입지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등이 있다(이무선, 2017).

하지만 기업은 기존 입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전략적인 선택으로 최적의 장소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전동호·주경식, 2012), 우수한 노동력 확보, 저렴한 토지 가격, 투자 환경 등을 찾아 이전하기도 한다(김석호 외, 2011). 기업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집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초기 입지선정 요인을 넘어서 이전에 대한 이해 및 원인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기업의 이전에 대한 요인을 밝히는 것은 창업기업의 전략적인 입지 선택 오류를 줄이고 나아가 이전 의도를 낮추어 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즉,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한 지역 내 정착하고 고급 인력의 증가 및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등 경영하기에 우수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창업기업의 입주와 다른 지역에 있던 기업의 이전이 가속화되며,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보스턴의 Route 128, 우리나라의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등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의 집적으로 집적경제효과(agglomeration economies)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Glider, 1989; Koo & Choi, 2013; Marshall, 1920; Storper & Salais, 1997).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입지선정에만 관심이 있을 뿐 기업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전하는지 또는 이전을 하지 않으려

* 이 연구는 2021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주저자,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jmchoi@kmu.ac.kr
· 투고일: 2021-09-16 · 수정일: 2021-12-10 · 게재확정일: 2021-12-22

고 하는지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김석호 외, 2011).

창업기업이 현재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현재 입지에 대한 만족도가 있다. 초기에 시장규모, 노동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결정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현재 입지가 기대 이하일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할 것이다. 반면에 현재 입지에 만족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해서 영위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또한 창업기업의 입지 만족도와 기업 이전과의 관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문남철, 2008; 최준영·오규식, 2012; 최홍봉·윤성민, 2004), 창업기업의 만족도가 이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입지요인의 만족도와 기업 이전과의 관계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여 입지요인의 만족도가 기업 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입지에 대한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었다. 특히 일반적인 생계형 창업기업이 아닌 기술 기반의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혁신형 창업기업을 원천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술 및 지식집약도가 높아 혁신성이 높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 신기술 기반 기업(new technology based firms), 벤처기업(배홍범 외, 2018; 이명종·주영진, 2019; 최종열, 2013)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혁신형 창업기업은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통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생계형 창업에서 '질 좋은 창업'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양영석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혁신형 창업기업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정부의 입지 조성 정책에 일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1 기업의 입지선정과 중요성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시작하는 데 있어 입지 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이무선, 2017). 좋은 입지를 선택해야만 입지로부터 오는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원 수급이 원활한 곳에 입지하거나,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입지한다. 또는 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해 우수한 인력 수급이 가능한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업의 결정은 입지로부터 오는 이점을 누리기 위함이다. 결국 기업의 입지 선정은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곳으로 선택한다(김주영·신기동, 201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입지선정은 단순히 경영자 또는 창업자의 선호가 아닌 전략적인 위치 선정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속한다.

다만 최적 입지의 선정이 언제나 그 기업의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으며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된다(최명규, 2003). 특히나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초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장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최적의 장소를 찾기란 쉽지는 않다.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입지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Adam Smith(1776)는 신생기업이라 할지라도 대도시에 위치하여 인재 활용의 가능성을 높이라고 주장한다. Dahl & Sorenso(2012)는 창업자가 오래 살던 곳에 기업이 입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웨덴 창업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창업자(entrepreneurs)가 오래 살았던 지역에 위치할 때 생존율과 수익, 현금흐름이 더 좋은데 이는 창업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이는 연구도 존재한다. Guzman(2019)에 따르면 단순히 고향 지역(home location)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집적경제효과가 발생하는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기업들이 집적해 있어서 노동시장의 풀(labor market pooling), 중간재 생산요소(intermediate input)의 공유, 지식의 확산(knowledge spillover)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Marshall, 1920). 이러한 집적경제효과를 누린 결과,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거나 특허, 매출 증대 등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Guzman, 2019).

한편, 국내 연구 중 정재진·임채홍(2008)에 따르면, 지역의 높은 혁신역량은 기업의 생산능력과 고용 창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지역 출신보다는 지역의 혁신역량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기업 입장에서 입지란 단순히 창업할 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높은 경영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창업기업이 초기에 어느 곳에 입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르고 경영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입장에서 좋은 환경의 제공은 기업의 집적을 불러일으켜 집적경제효과를 발생시키고, 타지역에 있던 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고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기업 집적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따라서 지역의 전략과 장기적인 발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업 입지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이무선, 2017).

2.2 창업기업의 기업 이전(relocation) 요인

기업은 여러 입지를 두고 생산비용 절감, 우수 인력 확보 용이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 및 결정하게 된다. 선택한 입지에서 고정비용을 제외한 충분한 수익을 누리고 있다면 다른 장소로 옮기기보다는 현재 장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것이다(Pellenbarg, et al., 2002). 하지만 기업의 내·외부적 변화로 인해 이전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창업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투입된 고정비용으로 인해 이전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입지에 대한 공장 설립 등의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우며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 때문이다(Pellenbarg et al., 2002; Van Dijk & Pellenbarg, 2000). 반면에 창업기업의 경우 아직은 사업 초기이며 규모가 작고, 성장 가능성이 커서 이전이 빈번하다(Brouwer et al., 2002). 대부분 창업기업이 유사하겠지만 그중에서도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3년 이후 재무적,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게 된다(윤병선·서영욱, 2016; 이명종·주영진, 2019). 이러한 죽음의 계곡을 넘기기 위한 기업의 경영활동과 나아가 극복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기업 이전과 새로운 지역에서 나오는 이점이다.

다음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창업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이전 요인을 경영적인 측면, 협력 및 네트워크 요인 측면, 창업환경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업이 이전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경영여건의 개선이다. 앞서 논의한 대로 기업이 입지를 선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기업활동에 유리한 입지를 선택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에 따라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입지가 오히려 기업의 경영에 방해된다면 창업자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전과 관련하여 경영 관련한 요인 중 전통적인 관점을 살펴보면, McLaughlin & Robock(1949)의 저서 “Why industry moves South”에서는 제조기업이 북동부주에서 남동부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저렴한 노동 비용(low cost labour)과 비교적 온건한(less active) 노동조합(trade unions)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주장하는 저렴한 노동 비용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요인을 신기술 또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창업기업의 이전 요인으로 단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영적 요인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전 요인 중 하나는 생산비용 절감, 시장 확장 및 접근성이 있다. 첫째, 기업은 생산요소 획득이 쉬운 곳 또는 운·수송비 절감으로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한다(도화용·이용택, 2008; Jones & Woods, 2002). 둘째, 기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포함한 시장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큰 곳으로 이전한다. 이러한 기업의 이전은 국가 내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이루어진다(Capik & Dej, 2019; Kapitsinis, 2017). 셋째,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한다. 일부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이전을 결정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운송 수단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 이전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Holl, 2004). 이와 관련하여 Zhu & He(2013)는 중국 닝보시(Ningbo)의 의류기업 사례를 분석하면서 비용 절감보다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기업 이전에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넷째, 저렴한 임대료를 위하여 이전한다. 임대료 역시 매출이 불확실한 창업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오게 된다면 이전을 고려하여 비용을 낮추려고 할 것이다(Elgar & Miller, 2010). 예를 들어, 최종민·유정민(2020)의 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입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1순위는 저렴한 임대료(31.2%),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접근성으로 정보획득 개발 유리(14.0%), 필요한 인력 구하기 용이(10.8%), 정부 및 지자체 각종 지원(10.8%), 생산 필요 요소 획득(10.4%) 순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Elgar & Miller(2010)의 설문조사에서도 공간 부족 다음으로 임대료가 기업 이전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다섯째, 기업은 경영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구하기 위하여 이전한다(Erickson & Wasylenko, 1980; Kiss, 2007). 산업별 또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기술 기반 창업기업은 기업의 성공을 위하여 숙련된 노동자(high skilled-labor)를 필요로 한다(Stuart & Sorenson, 2003). 따라서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없거나 고용하기 어렵다면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가 풍부한 곳으로 이전을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생산요소 획득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신속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제품 및 생산 제공에 있어서 운수송비 저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저렴한 임대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인력 공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다른 이전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및 협력 확장이다. 첫째, 기업은 다른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이전한다. 주변에 있는 연구기관 또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과의 활발한 네트워크는 다양한 시장 및 기술 정보와 암묵지(tacit knowledge) 획득에 유리하다(Cooke et al., 1998; Porter, 1990). 판교테크노밸리 사례를 연구한 정선양 외(2016)은 기업이 혁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인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창업기업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활용은 기업의 성과와 직결된다(권미영·정해주, 2012; 박주연·성창수, 2016; 윤병선·서영욱, 2016; 최종열, 2010). 따라서 창업기업이 현재 입지에서 네트워크 확장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전을 고려할 것이다. 둘째, 기업은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유치와 네트워크 형성을 쉽게 하도록 이전한다(De Prijcker et al., 2019). 창업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원 획득이 가장 중요하며, 여기서 대표적인 자원은 바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다. 미국의 벤처기업을 연구한 De Prijcker et al.(2019)의 연구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털을 많이 보유한 캘리포니아주나 매사추세츠주 등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은 투자 유치와 자금 확보를 위해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1: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민간(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의 이전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물리적 환경과 창업 분위기가 있다. 첫째, 기업은 더 나은 주거, 문화, 편의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와 정주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한다. 전기, 도로, 주택 등 우수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의 확보는 해당 입지에 머무르는 창업자에 대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며, 우수한 인력의 유입 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입지의 경쟁력을 높인다. 궁극적으로 혁신 및 암묵지 등의 지식확산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집적하는 경제적 성과를 보인다(임덕순 외, 2004).

둘째, 기업은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의 교통 연계성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을 선호하며 이를 위해 이전한다(Barın, 2009; De Bok & Sanders, 2005; Nicolai, 2019). 수도권 이전 선택에 대한 실증 분석을 연구한 도화용·이용택(2008)에 따르면, 이전 경험이 없는 기업이나 이전 경험이 있는 기업 모두 교통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부산의 창업기업 입지결정요인을 분석한 배은솔·윤갑식(2021)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밀집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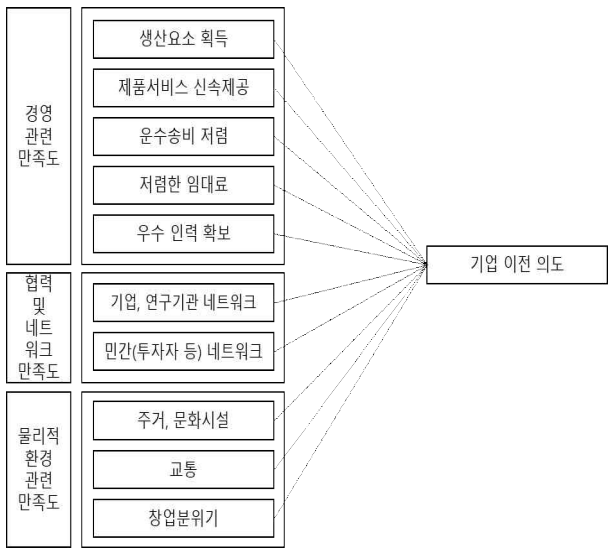
셋째, 기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업 분위기를 누리기 위해 이전한다. 기업가적 문화(entrepreneurial culture) 등 지역의 분위기는 기업들의 집적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있는 기업들을 해당 지역으로 유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oman & Baay, 2019). 과거의 경영환경은 세금이나 규제 등의 정부 제도를 의미한다면 오늘날에는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 간 협력 등의 기업가적 문화로 확장될 수 있다(Conroy & Deller, 2014). 이러한 창업 분위기의 조성, 확산 및 고조는 기업 간 협력과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지역의 이미지 개선으로 창업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의 지리적 집적을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예술의 거리였던 홍대·합정은 주변 대학가 학생들의 젊음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업 분위기 이점으로 2010년 이후 소규모 회사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으면서 홍합(홍대·합정)밸리라는 창업의 거리로 탈바꿈되었다(신지윤·김세용, 2014). 종합하면, 현재 입지의 정주 여건 만족도, 교통 만족도, 창업 분위기의 만족도에 따라서 기업의 이전을 고려할 것이며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3-1: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주거, 문화, 편의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에 대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업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Ⅲ. 연구 방법

3.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최종민·유정민, 2020). 해당 설문조사의 표본은 소재지와 창업연도별 비례할당을 실시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7월 23일부터 2020년 9월 2일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창업 7년 미만 기업 총 250개 기업을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매출액 등 자료의 누락을 제외한 총 231개의 기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 및 활용하였다.

본 연구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 기업이 24개사(10.4%), 법인기업이 207개사(89.6%)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기업은 141개사(61.0%), 비수도권 기업은 90개사(39.0%)로 나타났다. 업력에서는 3년 이하 초창기 창업기업이 136개사(58.9%), 4~5년 기업이 65개사(27.1%), 6~7년이 30개사(13.0%)로 나타났다. 업종에 대해서 ICT 제조/서비스가 103개사(44.6%), 전기/기계/장비/화학/소재가 58개사(25.1%), 바이오/의료가 37개사(16.0%), 기타(영상/공연/음반/게임/유통/서비스 등)가 33개사(14.3%)로 나타났다. 남성이 창업한 기업은 200개사(86.6%), 여성이 창업한 기업은 31개사(13.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업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6명(2.6%), 30대 54명(23.4%), 40대 101명(43.7%), 50대 70명(30.3%)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특성

구 분	사례 수		
	수도권 (비율)	비수도권 (비율)	전체 (비율)
기업 형태			
개인	12 (8.5)	12 (13.3)	24 (10.4)
법인	129 (91.5)	78 (86.7)	207 (89.6)
창업 기간			
3년 이하	83 (58.9)	53 (58.9)	136 (58.9)
4 ~ 5년	39 (27.6)	26 (28.9)	65 (27.1)
6 ~ 7년	19 (13.5)	11 (12.2)	30 (13.0)
창업 분야			
ICT제조/서비스	71 (50.4)	32 (35.6)	103 (44.6)
전기/기계/장비/화학/소재	26 (18.4)	32 (35.6)	58 (25.1)
바이오/의료	17 (12.1)	20 (22.2)	37 (16.0)
기타(영상/공연/음반/게임/디자인/유통/서비스 등)	27 (19.1)	6 (6.6)	33 (14.3)
창업자 성별			
남성	124 (87.9)	76 (84.4)	200 (86.6)
여성	17 (12.1)	14 (15.6)	31 (13.4)
연령대			
20대	6 (4.3)	0 (0.0)	6 (2.6)
30대	34 (24.0)	20 (22.2)	54 (23.4)
40대	62 (44.0)	39 (43.3)	101 (43.7)
50대	39 (27.7)	31 (34.5)	70 (30.3)

3.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이전 의도이다. 이전 여부를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한 선행연구는 존재하지만(도화용·이용택, 2008; Brouwer et al., 2002), 창업기업이 향후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의도를 물어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Hwang & Chen, 2016; Weaver et al., 2011).

본 연구는 "귀사는 향후 이전(이동) 계획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자료를 종속변수인 창업기업의 이전 의도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크게 3가지 범주로 구성된 혁신형 창업기업의 입지 만족도이며 각각의 요인에 대한 입지 만족도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첫째, 경영에 대한 만족도는 "생산(제품·서비스) 필요 요소 획득", "소비자에게 제품·서비스 신송 제공", "운수송비 저렴", "저렴한 임대료",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용이" 등 총 5가지 요소이다. 둘째, 협력 및 네트워크에 대한 만족도는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접근성 용이로 정보획득 및 개발 유리", "근처 민간(벤처캐피털 및 액셀러레이터 등)의 교육프로그램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용이" 등 총 2가지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창업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주거 및 문화, 편의시설 우수", "편리한 교통",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등 총 3가지 요소이다. 자료를 살펴보면 각각의 개별 요소에 대한 만족도가 6점 척도로 측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더욱 폭넓은 응답을 얻기 위해서(양소오, 2011) 6점 척도로 되어 있다. 또한 각 개념의 측정은 단일문항척도로 되어 있다. 측정개념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위하여 단일 개념을 다수의 질문을 활용하여 측정하는 일반적이나(도화용·이용택, 2008), 단일문항척도의 경우에도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더욱 간결하여 응답자가 설문지 작성을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김미량 외, 2010; Gardner et al., 1998). 또한 실제 단일문항척도와 다중문항척도로 측정된 두 요인 간 높은 상관관계로 높은 수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량 외, 2010). 통계적으로도 단일문항척도와 다중문항척도 간에 차이가 없는 연구도 존재한다(Gardner et al., 1998).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명			조작정 정의	관련 선행 연구
종속변수	기업 이전 의도		귀사는 향후 이전(이동) 계획이 있으십니까? (1=예 0=아니오)	Alkay(2010), Hu et al.(2008)
독립변수	경영	생산요소 획득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생산(제품·서비스) 필요요소 획득	Jones & Woods(2002)
		소비자 신속 제공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소비자에게 제품·서비스 신속 제공	Srivastava et al.(2004)
		운수송비 저렴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제품·서비스 생산 및 제공에 있어서 운·수송비 저렴	도화용·이용택(2008)
		저렴한 임대료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저렴한 임대료	Elgar & Miller(2010)
		인력확보 용이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용이	Erickson & Wasylenko(1980)
	협력 및 네트워크	기업 및 연구기관 접근성 용이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접근성 용이로 정보획득 및 개발 유리	Cooke et al.,(1998), Porter(1990)
		민간과 네트워크 구축 용이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근처 민간(벤처캐피털 및 액셀러레이터 등)의 교육프로그램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출 용이	De Prijcker et al.(2019)
	창업 환경	주거·문화· 편의시설 우수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주거 및 문화, 편의시설 우수	도화용·이용택(2008)
		편리한 교통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편리한 교통	Erickson & Wasylenko(1980), 도화용·이용택(2008), 배은솔·윤갑식(2021)
		창업 분위기	귀사의 현재 입주 공간 및 사업장 위치에 대하여 각 요소별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Roman & Baay(2019)
통제변수	창업분야		ICT제조/서비스, 전기/기계/장비/화학/소재, 바이오/의료, 기타(영상/공연/음반/게임/디자인/유통/서비스 등)	Dej et al.(2019)
	고용인원		창업기업의 고용인원(상시근로자)	Alkay(2010), Conroy et al.,(2016), De Bok & Van Oort(2011)
	매출액		2019년 기준 창업기업의 매출액	Alkay(2010)
	업력		2019년 기준 창업기업의 업력	Alkay(2010), De Bok & Van Oort(2011), Nguyen et al.(2013)

주: 설문 문항의 조작적 정의는 최종민·유정민(2002)의 설문지 문항을 참고함

<표 3> 주요 변수 기초통계 및 상관계수

변수명	기초통계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 기업 이전 의도	0.33	0.47	1										
2. 생산요소 획득	4.65	0.88	-0.13	1									
3. 소비자 신속 제공	4.71	0.77	-0.22***	0.70***	1								
4. 운수송비 저렴	4.55	0.82	-0.19***	0.61***	0.66***	1							
5. 저렴한 임대료	4.60	1.00	-0.05	0.37***	0.29***	0.26***	1						
6. 인력확보 용이	4.44	1.05	-0.16**	0.23***	0.32***	0.35***	0.10	1					
7. 기업 및 연구기관 접근성 용이	4.52	0.93	0.02	0.41***	0.32***	0.30***	0.18***	0.34***	1				
8. 민간과 네트워크 구축 용이	4.31	1.07	-0.03	0.37***	0.37***	0.36***	0.29***	0.39***	0.71***	1			
9. 주거·문화·편의시설 우수	4.36	0.96	-0.08	0.28***	0.31***	0.32***	0.24***	0.45***	0.27***	0.38***	1		
10. 편리한 교통	4.65	1.08	-0.12*	0.25***	0.33***	0.37***	0.11	0.50***	0.17***	0.29***	0.57***	1	
11. 창업 분위기	4.56	0.80	-0.04	0.24***	0.27***	0.22***	0.23***	0.31***	0.32***	0.35***	0.59***	0.41***	1

*** $p < 0.01$ ** $p < 0.05$ * $p < 0.1$

본 연구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그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먼저 업종에 따라서 이전 의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종을 통제하였다. 업종은 ICT제조/서비스업, 전기/기계/장비/화학/소재, 바이오/의료, 기타 등의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준거집단은 ICT제조/서비스업이다. 다음은 창업기업의 고용인원을 통제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용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할 확률이 높다(전동호·주경식, 2012). 고용인원은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를 모두 합한 종사자 수로 측정하였다. 매출액은 조사연도인 2020년의 전년도인 2019년 매출액을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의 업력을 통제하였다. 같은 창업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업력이 짧은 초기 창업기업보다는 업력이 긴 중기 창업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거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이전하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2>와 같다.

Ⅳ. 분석 결과

<표 3>은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와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주요 변수의 상관계수는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고 인과관계를 나타낸 것이 아닌 단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에 주의를 기해야 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의 계수 값이 유의미한 경우가 많아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면 독립변수의 회귀 계수의 값이 불안정해져서 해당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면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 중 하나를 제거하는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변량 증폭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VIF값이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O'brien, 2007). 분석 결과 최고로 높은 VIF값이 2.51이며 평균 VIF값이 1.79로 10미만으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연속형이 아니라 범주형 자료인 이항변수로 구성되어있다.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을 사용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은 종속변수가 연속형일 때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이전 의도를 묻는 이항변수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표 4>는 입지에 대한 세부 항목별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본 연구 질문에 맞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창업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수도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1>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입지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서비스 신속 제공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β=-1.052, $p<.05$)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용이 항목에 대한 만족도 역시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β=-0.562, $p<.05$)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네트워크나 창업환경에 대한 세부 항목별 만족도는 기업 이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수도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 2>의 결과에 따르면,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 항목이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관계(β=-0.680, $p<.1$)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 중 편리한 교통 항목이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관계(β=-0.602, $p<.05$)를 보였으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에 대한 항목 역시 기업 이전 의도에 부(-)의 영향관계(β=-0.731, $p<.1$)를 보였다. 통제변수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는 반면 업력은 정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혁신형 창업기업의 이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에 대한 만족도는 수도권/비수도권 여부에 따라 영향 관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 중 하나인 매출이나 업력은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영과 관련된 만족도가 부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인 매출이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냈으며 수도권 창업기업과 달리 경영과 관련된 만족도 또는 네트워크 만족도보다는 주변의 창업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이전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수도권 창업기업 (141개)	비수도권 창업기업 (90개
독립변수	경영 만족도	생산 요소획득	0.074	0.554
		소비자 신속 제공	-1.052**	-0.516
		운수송비 저렴	-0.325	-0.168
		저렴한 임대료	0.095	0.53
		인력확보 용이	-0.562**	0.109
	네트워크 만족도	기업 및 연구기관 접근성 용이	0.280	0.464
		민간과 네트워크 구축 용이	0.429	-0.680*
	창업 환경 만족도	주거·문화·편의시설 우수	-0.285	0.403
		편리한 교통	0.288	-0.602**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0.252	-0.731*
통제변	분야 (준거집단: ICT제조/서비스)	전기/기계/장비/화학/소재	-0.821	0.041

수		바이오/의료	-0.027	-0.406
		기타	-0.868	-1.858
	고용인원(log)		-0.159	-0.352
	매출액		0.084	-0.755***
	업력		-0.156	0.877***
상수			3.743	6.259**
Log likelihood			-75.052526	-42.530425
Wald chi2			31.63**	26.68**

주: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함
*** $p < 0.01$ ** $p < 0.05$ * $p < 0.1$

Ⅴ. 결론

혁신형 창업기업의 입지선정에 관한 의사결정은 중요하다. 입지로부터 오는 다양한 혜택과 그에 따른 경영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창업 3년 차부터 나타나는 죽음의 계곡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행연구는 입지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입지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달리 이전이 빈번하다.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현재 입지가 기대에 못 미쳐서 이전하거나 입지가 주는 집적경제효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더 나은 환경으로 이전한다. 창업기업의 이전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창업기업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중 하나이다. 또한 정부정책과 지역의 전략 수립 및 나아가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국외에서는 기업 이전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Alkay, 2011, Brouwer et al., 2002; Capik & Dej, 2019),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김석호 외, 2011; 도화용·이용택, 2008).

본 연구는 신기술 또는 첨단기술 기반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입지에 대한 경영, 협력 및 네트워크, 창업환경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업기업마다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입지와 인력 공급이 용이한 입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전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의 기업은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입지와 편리한 교통,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업 분위기가 있는 입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전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창업기업의 특성과 입지 선택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문남철(2008)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창업의 경우 고차 서비스업종에, 비수도권의 경우 같은 생계형 서비스업종에 더욱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의 ICT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력 확보가 중요한 ICT 기업의 경우 70.9%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철(2019)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형 제조창업기업의 64.13%는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해있는 수도권에서의 창업은 집적경제효과의 이점(시장규모와 잠재력, 고학력 인력 확보 등)을 활용한 창업이 비수도권과 비교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벤처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최홍봉·윤성민(2004)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기업 간 기술 협력 활동이 활발하지만, 비수도권 벤처기업의 경우 대학과의 기술 협력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창업기업의 입지 선택 전략과 나아가 기업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수도권 창업기업은 수도권의 다양한 집적경제효과와 인력확보를 위한 경영 관련 입지를 더욱 고려하며 이에 따른 만족도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전 유무를 계획할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 창업기업은 창업하기 쾌적한 환경, 삶의 질이 좋고 민간 벤처캐피털과의 네트워크로 자금확보를 기업 이전 의도 유무를 결정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혁신형 창업기업 간에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창업기업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 있어서 학술적인 기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하기 좋은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입지 또는 공간제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자는 이러한 다양한 입지 가운데서 창업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를 결정하고 사업을 영위하지만,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창업자의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기업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창업기업의 또 다른 전략적인 결정 중의 하나이다(Dej, Jarczewski, & Chlebicki, 2019). 하지만 창업기업의 잦은 이전은 고급 인력의 이탈과 또 다른 비용 발생, 새로운 환경의 적응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이탈과 이에 따른 지역의 집적경제효과 감소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혁신형 창업기업의 빈번한 이전을 줄이고 집적경제효과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 창업기업에는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경영 지원과 함께 필요한 인력이 알맞은 때와 장소에 공급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조성해야 하겠다. 반면 비수도권 혁신형 창업기업은 벤처캐피털과의 네트워크 기회가 적으며, 상대적으로 투자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최종민 외, 2020), 민간 투자자, 기업 등의 네트워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곳에 입지선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프라를 갖춘 비수도권에서는 창업기업이 좀 더 집적될 수 있도록 교통 요지에 입지를 조

성하고, 자유롭고 창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혁신형 창업기업의 입지 만족도가 기업 이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내의 연구가 많지 않고 자료의 한계로 연구모형이 비교적 단순하다. 다만 본 연구는 후속 연구를 위한 탐색적 연구로 이를 바탕으로 더욱 고도화된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단일 개념을 다수의 설문으로 활용 측정하는 것과 달리(도화용·이용택, 2008) 자료의 한계로 단일항목 측정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이 있다.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깊이 있는 주제와 시의적절한 변수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입지에 대한 불만족과 기업 이전 의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조절 효과를 살펴볼 수도 있다. 둘째. 본 연구를 기초 삼아서 향후 연구에서는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질적 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 셋째,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의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이전 요인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입지의 만족도와 이전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REFEREN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ICT 중소기업 실태조사*.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미영·정해주(2012). 기업가, 기술 및 네트워크 특성이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7(1), 7-18.

김미랑·김재운·황선환(2010). 진지한 여가척도 (SLIM) 의 단일문항 측정 적용검토.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4), 147-156.

김석호·변충규·김국태(2011). 경남지역 입지기업의 투자유치환경 만족도에 따른 이전의도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4(5), 3097-3118.

김주영·신기동(2018). 지식산업센터 이전기업의 성장효과와 결정요인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36(3), 275-294.

도화용·이용택(2008).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한 수도권 기업의 재입지 선택에 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9(4), 131-144.

문남철(2008). 지역간 창업 격차 및 특성. *국토지리학회지*, 42(2), 255-267.

문준서·장원규(2008). 모바일산업클러스터구축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논문지*, 33(3), 159-164.

박주연·성창수(2016). 창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3), 87-96.

배은솔·윤갑식(2021). 부산광역시 지식서비스업 창업의 입지결정요인분석. *지방정부연구*, 25(1), 265-280.

배홍범·송민경·김서균(2018). ETRI 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기업의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3(1), 61-72.

신지윤·김세용(2014). 도심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창조도시 개발계획의 필요성 연구: 홍합밸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4(1), 141-142.

양소오(2011). *Likert 형 척도의 반응 형식에 따른 양호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양영석·최종인·황보윤(2012). '질 좋은' 창업의 개념정립과 창업교육 중심의'질 좋은'창업육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벤처창업연구*, 7(2), 141-150.

윤병선·서영욱(2016). 창업기업의 준비 및 초기단계 활동들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4), 1-15.

이명종·주영진(2019). 기술기반창업기업의 기업활동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4(6), 59-76.

이무선(2016). 벤처기업의 입지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안양시 도시개발 전략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2), 207-219.

이무선(2017). 외식창업부동산점포의 입지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12(2), 77-86.

임덕순·김왕동·유정화(2004). 대덕연구단지의 발전과정 및 국제비교:-혁신클러스터 관점에서. *기술혁신학회지*, 7(2), 373-395

전동호·주경식(2012). 충북지역 오창과학단지의 입지와 기업유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4), 400-413.

정선양·황두희·임종빈(2016). 혁신클러스터의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판교테크노밸리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19(4), 848-872.

정재진·임채홍(2008). 지역혁신역량에 따른 혁신기업의 입지와 성과에 관한 실증 분석. *정부학연구*, 14(4), 171-200.

조성철(2019). 우리나라 기술형 제조창업의 입지 분포와 요인. *국토*, 456(10), 11-18.

최명규(2003). 2003년 경제흐름과 주류산업의 대응방안. *주류산업*, 23(1), 1-10.

최종민·유정민(2020). *혁신창업거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최종민·윤형덕·문정훈(2020). *신산업 혁신성장과 스케일업 강화를 위한 투자 플랫폼 구축방안*.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최종열(2010). 기술창업기업의 네트워크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보육센터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JSBI)(구 벤처경영연구)*, 13(4), 87-108.

최종열(2013). 기술창업기업의 기술보유유형과 성과와의 관계. *벤처창업연구*, 8(1), 29-36.

최준영·오규식(2012). 정보통신기술 (ICT) 기업의 지역간 이동 패턴 및 요인 분석. *국토계획*, 47(7), 5-20.

최홍봉·윤성민(2004). 벤처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지방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1), 29-43.

Alkay, E.(2011). What determines the relocation tendency of manufacturing firms?. *Europ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Adam, S.(1776). *Wealth of Nations*. London: W. Strahan and T. Cadell.

Bae, E. S., & Yun, K. S.(2021). An Analysis of Locational Determinants for Knowledge Services Startups in Busa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5(1), 265-280.

Bae, H. B., Song, M. K., & Kim, S. K.(2018). A Study on the Impact of Competency of Technology: Based Startups on Performance Using ETRI Technolog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1), 61-72.

Barın, E.(2009). *Industrial firm relocation: the case of Gebze organized industrial zone* (Master's thesis).

Brouwer, A., Mariotti, I., & van Ommeren, J.(2002). The firm

relocation decision: a logit model. *Europ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Capik, P., & Dej, M.(2019). *Spatial organisation and movements of firms and industries: the role of firm and place in (re) location research*. In Relocation of Economic Activity(pp. 1-11). Springer, Cham.

Cho, S. C.(2019). Location Distribution and Factors of Technological Manufacturing Start-ups in Korea.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456(10), 11-18.

Choe, M. G.(2003). Economic Trends and Countermeasures of the Liquor Industry in 2003. *Korea Alcohol and Liquor Industry Association*, 23(1), 1-10.

Choi, H. B., & Yoon, S. M.(2004). An Empirical Study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Venture Busines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7(1), 29-43.

Choi, J. M., & Yoo, J. M.(2020). *A Study on Vitalizing a Hub for High Technology Startups*. Seoul: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Choi, J. M., Yoon. H. D., & Moon, J. H.(2020).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vestment Platform for Reinforcing Innovative Growth and Scale-up of New Industry*. Seoul: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Choi, J. Y., & Oh, K. S.(2012). An Analysis on Inter-regional Relocation Patterns and Factor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Firm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47(7), 5-20.

Choi, J. Y.(2010). Characteristics of Network and Performance of Technology Based Start-up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13(4), 87-108.

Choi, J. Y.(2013). Concreteness of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of technology based Start-up compan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1), 29-36.

Chung, J. J., & Lim, C. H.(2008). Empirical Analysis on RIC(Regional Innovation Capacity) and LPIE(Location and Performance of Innovational Enterprises).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14(4), 171-200.

Chung, S. Y., Hwang, D. H., & Im, J. B.(2016). A Study on the Impact Factors for Innovation Cluster: A Case of the Pangyo Techno Valley.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19(4), 848-872.

Conroy, T., & Deller, S.(2014). *Regional Growth and Development Strategies: Business Relocation,* Patterns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Policy Brief Series No. 1. Wisconsin.

Conroy, T., Deller, S., & Tsvetkova, A.(2016). Regional business climate and interstate manufacturing relocation decision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60, 155-168.

Cooke, P., Uranga, M. G., & Etxebarria, G.(1998). Regional systems of innovat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Environment and planning A*, 30(9), 1563-1584.

Dahl, M. S., & Sorenson, O.(2012). Home sweet home: Entrepreneurs' location choices and the performance of their ventures. *Management science,* 58(6), 1059-1071.

De Bok, M., & Van Oort, F.(2011). Agglomeration economies, accessibility, and the spatial choice behavior of relocating firms. *Journal of Transport and Land Use*, 4(1), 5-24.

De Prijcker, S., Manigart, S., Collewaert, V., & Vanacker, T.(2019). Relocation to get venture capital: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3(4), 697-724.

Dej, M., Jarczewski, W., & Chlebicki, M.(2019). *Re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Within Major Metropolitan Areas in Poland—Scale and Key Characteristics*. In Re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pp. 87-108). Springer, Cham.

Do, H. Y., & Lee, Y. T.(2008). Empirical Study on Firm Relocation Choice in Seoul Metropolitan Area. *Seoul Studies*, 9(4), 131-144.

Elgar, I., & Miller, E. J.(2010). How office firms conduct their location search process? An analysis of a survey from the greater Toronto area.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33(1), 60-85.

Erickson, R. A., & Wasylenko, M.(1980). Firm relocation and site selection in suburban municipaliti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8(1), 69-85.

Glider, G.(1989). *Microcosm.* New York: Basic Books.

Gardner, D. G., Cummings, L. L., Dunham, R. B., & Pierce, J. L.(1998). Single-item versus multiple-item measurement scales: An empirical comparis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8(6), 898-915.

Guzman, J. (2019). Go west young firm: agglomeration and embeddedness in startup migrations to Silicon Valley. *Columbia Business School Research Paper*, 18-49.

Holl, A.(2004). The role of transport in firms' spatial organization: evidence from the Spanish food processing industry. *European Planning Studies*, 12(4), 537-550.

Hu, W., Cox, L. J., Wright, J., & Harris, T. R.(2008). Understanding firms' relocation and expansion decisions using self-reported factor importance rating. *Review of Regional Studies*, 38(1), 67-88.

Hwang, Y. S., & Chen, D.(2016). A reversal theory in internationalization: case of Korean jewelry inside China. *Chinese Management Studies*. 10(1), 82-101.

Jeon, D. H., & Joo, K. S.(2012). A Study on the Location and the Types of Enterprise in Ochang Technopolis in Chungcheongbuk-do(Province), Kore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8(4), 400-413.

Jones, L. L., & Woods, M. D.(2002). *Economic Location Theory and Practice. (Unpublished work)*, Texas A&M University.

Kapitsinis, N.(2017). Firm relocation in times of economic crisis: Evidence from Greek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ovement to Bulgaria, 2007-2014. *European Planning Studies*, 25(4), 703-725.

Koo, J., & Choi, J.(2013). *The rise of the biomedical cluster in Wonju, Korea.* In Clusters and Economic Growth in Asia. Edward Elgar Publishing.

Kim, J. Y., & Shin. K. D.(2018). Growth Effects and Determinants of Located Firm in Knowledge Industry Center. *Korea Real Estate Society*, 36(3), 275-294.

Kim, M. L., Kim, C. W., & Hwang, S. H.(2010). Validity of the Single Item Measure for Serious Leisure.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34(4), 147-156.

Kim, S. H., Byun, C. G., & Kim, G. T.(2011). A Study on

Relocational Intention to the Business Investment Climate in Gyeongnam Province Area Firm.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4(5), 3097-3118.

Kiss, E.(2007). The impacts of relocation on the spatial pattern to Hungarian industry. *Geographia Polonica*, 80(1), 43.

Kwun, M. Y., & Jeong, H. J.(2012). The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network on firm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7-18.

Lee, I. H. I.(2020). Startups, relocation, and firm performance: a transaction cost economics perspective. *Small Business Economics*, 1-20.

Lee, M. J., & Joo., Y. J.(2019). The Effect of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TBE) Activities on Firms Growth,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6), 59-76.

Lee, M. S.(2016). A study on the Location Factors Impact on the Satisfaction of Venture Companies: Around anyang City Development Stracteg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207-219.

Lee, M. S.(2017). A Study on Influence of Location Factors of Food Service Business Start-up Real Estate Store on Business Performance: Mediated Effect of Start-up Business Satisfac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2), 77-86.

Marshall, A.(1920).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MacMillan and Co.

McLaughlin, G. E., & Robock, S. H.(1949). *Why industry moves South: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recent location of manufacturing plants in the South*. Kingsport Press, National Planning Association, Kingsport Tennessee.

Ministry of Science & ICT.(2020). *Survey on actual state of ICT SMEs*. Sejong City: Ministry of Science & ICT.

Moon, N. C.(2008). Regional Disparity of the New Firm Formation in Korea.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42(2), 255-267.

Moon, J. S., & Jang, W. G.(2008). A Study on Location of Mobile Field Testbed.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B*, 33(3), 159-164.

Nguyen, C. Y., Sano, K., Tran, T. V., & Doan, T. T.(2013). Firm relocation patterns incorporating spatial interactions.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50(3), 685-703.

Nicolai, J. P.(2019). *Dirty versus Clean Firms' Relocation under International Trade and Imperfect Competition*. CER-ETH-Center of Economic Research at ETH Zurich Working Paper,(19/319).

O'brien, R. M.(2007). A caution regarding rules of thumb for variance inflation factors. *Quality & quantity*, 41(5), 673-690.

Park, J. Y., & Sung, C. S.(2016). The Effect of Entrepreneurs' Social Network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87-96.

Pellenbarg, P. H., Van Wissen, L. J., & Van Dijk, J.(2002). *Firm relocation: state of the art and research prospects*. Groningen: University of Groningen.

Porter, M. E.(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Competitive Intelligence Review*, 1(1), 14-14.

Roman, A., & Baay, N.(2019). *The plight of London-based startups* (Doctoral dissertation, Hogeschool van Amsterdam).

Shin, J. Y., & Kim, S. Y.(2014). Study on the urban planning necessity of Creative City considering downtown culture: focused on HongHap Valley, Seoul. *Proceeding of Annual Conference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4(1), 141-142

Sridhar, K. S., & Wan, G.(2010). Firm location choice in cities: Evidence from China, India, and Brazil. *China Economic Review*, 21(1), 113-122.

Srivastava, S. K., Amula, A., & Ghagare, P.(2016). Service facility relocation decision: a case study. *Facilities,* 34(9), 595-610

Storper, M., & Salais, R.(1997). *Worlds of Production: the action frameworks of the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Stuart, T., & Sorenson, O.(2003).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spatial heterogeneity in founding rates and the performance of biotechnology firms. *Research policy*, 32(2), 229-253.

Van Dijk, J., & Pellenbarg, P. H.(2000). Firm relocation decisions in The Netherlands: An ordered logit approach. *Papers in Regional science*, 79(2), 191-219.

Weaver, K. M., Liguori, E. W., Muldoon, J., & Vozikis, G.(2011). Small firm relocation intent: an assessment of anecdotal causes. *Advanced in Business related scientific research Journal*, 2(1), 4-9.

Yang, S. O.(2011). *The Comparison of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about Likert Scale's Response Forma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ategories and the Existence of Neutral Point*.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Yang, Y. S., Choi. J. I., & Hwang. B. Y.(2012). A Conceptual Study for Creating "A Good Quality Startup" by Algorithm-Bas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2), 141-150.

Yim, D. S., Kim, W. D., & Yu, J. H.(2004). The Evolutionary Process of Daedeok Science Town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In the Perspective of Innovation Cluster.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7(2), 373-395

Yoon, B. S., & Seo. Y. W.(2016).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tartup' Activities of Preparatory Stage and Early Stage on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4), 1-15.

Zheng, D., & Shi, M.(2018). Industrial land policy, firm heterogeneity and firm location choice: Evidence from China. *Land Use Policy*, 76, 58-67.

Zhu, S., & He, C.(2013). Geographical dynamics and industrial relocation: Spatial strategies of apparel firms in Ningbo, China.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54(3), 342-362.

The Effect of Location Satisfaction of Innovative Start-ups on the Intention of Relocation: Focusing on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Jongmin Cho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ocation satisfaction of innovative start-ups, located in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on the intention of relocation.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data of a survey of 231 innovative start-ups that were founded less than 7 years ago. 10 factors related to the aspects of business management, network building, and business environment were considered as location satisfaction of start-ups. The dependent variable was whether innovative start-ups plan to relocate. First,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case of innovative start-ups in capital area, the intention to relocate was found to decrease when the location satisfactions related to the promptly provision of products and services to consumers and ease of supplying labor were increased. Second, in the case of innovative start-ups in non-capital area, it was found that the intention to relocate was found to decrease when the location satisfactions related to creating a network, convenient transportation and free and creative start-up environment were increas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sales of start-ups in non-capital area, the lower their intention to relocate while the higher firm age of start-ups in non-capital area, the higher their intention to relocate. This study has an academic contribution to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etween the location satisfactions of start-ups and the intention to relocate, which has been rarely addressed in Korea, and to shedding light on the difference in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Furthermore,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since it suggests factors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for geographical agglomeration of start-ups.

KeyWords: start-up, relocation, location, satisfactio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isa Research Grant of KeimyungUniversity in 2021.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Keimyung University, jmchoi@kmu.ac.kr